

느티나무 흰별무늬병 [백성병]

Septoria leaf spot of zelkova

방제법

❖ 묘포에서는 잎이 나기 시작할 때부터 9월 중순까지 만코지수화제, 동수화제 등 적용약제를 살포하여 초기발병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밀식을 피하고 비배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세를 튼튼히 하며, 병든 낙엽은 긁어모아 태우거나 땅속에 묻는다.

살아숨쉬는 숲,
숲의 생태와 환경을 생각합니다



전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번지
Tel. (063)219-5238 Fax : (063)270-2592
Homepage: <http://treediagnosis.jbnu.ac.kr/>



전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느티나무 흰별무늬병

학명 : *Sphaerulina abeliceae* (Hiray.)

영명 : Septoria leaf spot of zelcova

일명 : Sirahosi-byo

분포 : 한국, 아시아(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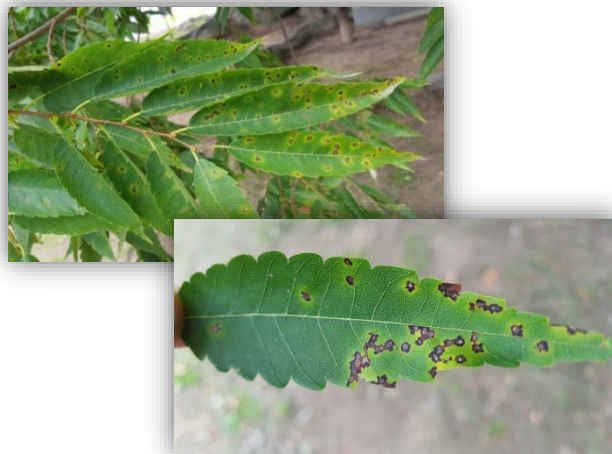
기주식물 : 느티나무

피해

❖ 주로 어린묘목에서 발생을 많이 하며 큰나무에서는 지표에 가까운 아랫잎과 맹아지의 잎에서 발생하지만, 건물에 근접하거나 그늘에 심은 나무에서는 나뭇잎 전체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장마 끝 무렵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여름~초가을에 병세가 많이 나타나며, 이 병으로 인하여 조기낙엽이 발생하지 않으나, 심하게 병이 발생될 경우 묘포에서는 묘목의 생장이 위축되고 큰나무에서는 관상가치의 저해한다.

병징 및 병환

❖ 잎에 작은 갈색의 점무늬가 나타나고 차츰 확대 융합하여 10mm 정도의 다각형 내지 부정형의 병반으로 확대 된다. 병반의 가운데는 회백색으로 불규칙하게 균열되어 떨어지기도 한다. 건전부와의 경계는 짙은 적갈색이다. 병반위에는 흑갈색의 분생포자각이 형성된다.



[느티나무 흰별무늬병 잎에 나타나는 병징]

병원균

❖ 병원균은 *Sphaerulina abeliceae* 이다. 곰팡이의 일종으로 불완전균류에 속한다. 포자의 양끝은 뾰족하며 크기는 $29\sim39\times1\sim2.4\mu\text{m}$ 이다. 병원균은 병든 낙엽의 병반에서 성숙한 분생포자각의 상태로 겨울을 나고 봄에 분생포자각에서 분출된 분생포자가 빗방울에 섞여서 전파된다.



[*Sphaerulina abeliceae* 포자]